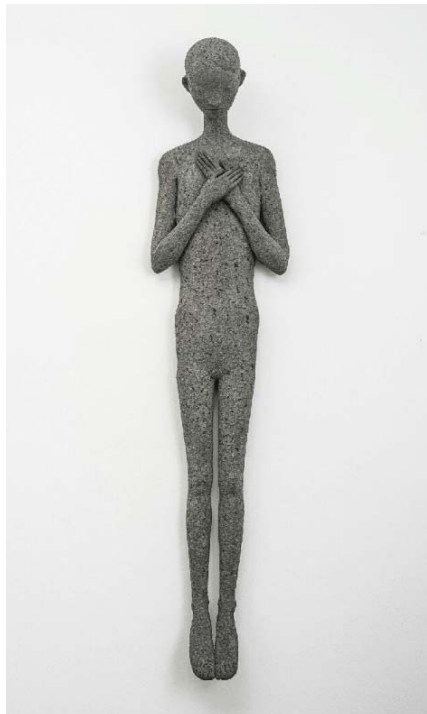


서귀포 바람이 품은 푸르른 생명의 미술 따라



이중섭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이유미의 '고이 간직하다'

공립미술관 3곳 공동기획 서귀포 활동 작가 등 12명 삶과 일상, 자연 등 담아 온라인 영상 전시도 병행

도시에 3개의 공립미술관을 보유한 미술관의 도시 서귀포시. 1987년 국내 첫 시립미술관으로 문을 연 기당 미술관, 피난화가 이중섭과의 인연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끌어내며 2002년 이중섭전시관으로 개관한 이중섭 미술관, 서귀포 예술가의 흔적을 오롯이 담아낸 공간으로 2008년 탄생한 소암기념관이 그곳이다.

서귀포시가 이들 미술관을 엮어 첫 공동기획전을 마련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서귀포에 바람'전이

다. 이번 기획전은 각기 다른 성격의 미술관이지만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 과 코로나19로 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고 뜻을 모았다. 2019년에는 기증을 주제로 릴레이 전시를 열었고 이번엔 같은 테마로 공동기획전을 준비했다.

참여 작가는 12명에 이른다. 서귀포를 기반으로 활동하거나 이 도시에 동지를 둔 작가들이 서귀포의 기억 등을 풀어낸다.

기당미술관은 '생활의 바람-지금, 여기, 서귀포에 살고 있습니다'란 제목으로 안병근(서양화), 오승용(한국화), 변금윤(영상·설치), 양형석(도예) 작가를 초대해 서귀포의 삶과 일상을 표현한 작품을 펼치고 있다. 이중섭미술관은 '역사의 바람-제주를 건넌 예술가들'이란 이름 아

래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계기로 제주에 정착한 작가들 중심으로 이유미(조각), 한윤정(설치), 김기대(설치), 양재열(회화)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암기념관 전시는 '자연의 바람-바람이 품은 푸른 생명력, 서귀포'로 현충연(서양화), 양상철(융합서예), 고순철(서양화), 오민수(한국화) 작가가 출품했다.

현장 관람과 더불어 작가 인터뷰와 작업과정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미술관 SNS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3개 미술관 전시를 모두 관람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통합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시는 내년 2월 28까지 계속된다. 개막 행사는 11월 20일 소암기념관에서 열린다. 문의 760-3551.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념관

<29>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준네 골았저. "하르바지- 강이 등가는 거 어명 뱃수과?"
하르바지 골멘. "ㅎ술 이서사 ㅎ겨. 으맹이아- 물 혼 번 더 질영 올타? 더 ㅋ글ㅎ겨 시쳐사 ㅎ겨. 게곰이 남이 하영 나았저. 강이 굿인 거 잘 빼사 ㅎ느네. 준네야- 소쿠리 ㅎ나 더 ㅋ정오라."
준네 골았저. "예, 소쿠리 ㅎ나 큰 뱃수과? 고팡이 갓당 오쿠다."
으맹이 골멘. "하르바지- 물 이디 잇수다. 물 질인 오젠ㅎ난 ㅎ술 심드우다. 경ㅎ디 강이범벅은 어느게 먹어지쿠과? 배 고프우다."
하르바지 골멘. "아고, 으맹이아- 강이 범벅 ㅋ 먹어 질 거여."

* 제주어 풀이

- * 등가는 거 어명 뱃수과?: 답가놓은 것 어떻게 됐어요?
- * ㅎ술 이서사 ㅎ겨: 조금 있어야 하겠다.
- * 게곰(개곰, 거곰): <이름>거품.
- * 굿다: <그림>총지 않다. 인짱고 거칠다. 날져 따위가 나쁘다. 맛이 달지 않다. 마음 속이 곱지 않다.
- * 굿인 거 잘 빼사 ㅎ느네: 굿은 것을 잘 빼야 한다.
- * 고팡(광, 껌팡, 팻팡, 노제기, 암팡, 장팡): <이름>곡식 따위를 저장하기 위해 마련된 창고.
- * 갓당 오쿠다: 갓다 올게요.
- * 강이범벅: <이름>먹을 수 있는 게에 밀가루 따위를 섞어 만든 범벅.
- * 어느게 먹어지쿠과?: 언제 먹을 수 있어요?

고재민 화백

제주 색 확장한 겹겹의 제주옹기

김진희 개인전 '색의 겹' 이달 23일까지 갓전시관

김진희 작가가 '색의 겹'이란 제목으로 이달 23일까지 갓전시관(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제주옹기의 새로운

가치를 모색한 자리다. 옹기소지를 개발해 제주토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를 확장시켰고 다층적, 점층적 반복에 의한 겹의 시각적 형상화를 꾀했다. 김 작가는 "연속성을 지닌 반복적인 이미지는 겹겹이 포개어져 지나간 시간에 대한 오래된 기억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김진희의 '색의 겹'.

문화가 쏘다

소극장 축제 4개 극단 열전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가 주최하는 제29회 소극장 연극축제가 이달 18~21일 제주도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소극장 축제에는 도내 4개 극단이 참여한다. 퍼포먼스단 몸짓의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호'(김란이 작, 강종인 연출), 극단 이어도의 '보통은 망하니까'(송정혜 작, 김광빈 연출), 극단 가람의 '낯술'(이상용 작, 최우진 연출), 극단 파노가리의 '발자국'(문무환 작, 연출)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된다. 무료 공연으로 관람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문의 755-0904.

동네책방 로스코프로젝트

서귀포시 호근남로 둔기호테복스, 안덕면 산방로 어떤 바람,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파파사이트 등 제주 동네책방 세 곳이 '로스코프로젝트-어디로도, 어디라도' 전시를 열고 있다.

이 전시는 책의 상상력과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언택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사후 50주년을 맞은 마크 로스코의 삶과 그림을 작년에 출간된 '나의 장래 희망은, 귀여운 할머니'란 책에 나오는 허니자 가방으로 오마주한 작품이 나왔다. 지난 5~10월 세 곳의 서점에서 운영한 가방 뜨개 소모임에서 만든 작품들로 이달 21일까지 파파사이트에서 전시된다.

제주음악창작소 쇼케이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달 18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이번 쇼케이스는 제주음악창작소가 진행한 음반제작 지원사업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다. 참가자는 작곡가 방승철, 2013년 '월드 다이어리'로 데뷔한 켄 얼론, 작곡가 꿈아리와 여러 아티스트가 콜라보한 아이음소리, 힙합그룹 45RPM, 인디밴드 오마르와동방전력, 싱어송라이터 장필순, EDM뮤지션 주도, 인디밴드 흥어다. 현장 관람 인원은 제한되지만 제주음악창작소 제뮤(JEMU) 유튜브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된다.

3회 제주국제현대음악제

제주국제현대음악협회(음악감독 제주대학교 정주희 교수)는 이달 19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제3회 제주국제현대음악제를 개최한다.

이 음악제는 제주 등 국내의 작곡가와 연주자를 초청해 창작 음악을 소개하는 자리다. 독일 출신 작곡가 요하네스 K 힐데브란트, 르네 쿠완을 비롯 제주의 바람, 물, 돌의 자연의 소리를 악기로 재현한 권은실의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미메시스 II', 돈내코 계곡 이미지를 피아노로 표현한 최한별의 '돈내코 계곡', 제주 민요 소재 조영미의 4체널 음향과 영상을 위한 '탐라요'가 초연된다.

기억 속의 제주, 1990년대를 보다

김중현 사진가 온라인 전시

1990년대 제주 풍경을 불러낸 사진전이 11월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펼쳐지고 있다. 사진가 김중현씨가 마련한 '기억 속의 제주'전이다.

김 작가는 지난해 1980년대 제주 풍경이 담긴 흑백사진 150여 점으로 첫 '기억 속의 제주'전을 열었다. 이번에는 90년대에 여러 카메라 기종과 컬러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모았다. 지난 1년에 걸쳐 필름스캔, 포토샵을 통해 현상 작업한 사진들로 총 90여 점에 이르는

다. 돈내코 물맞이, 김녕리 해안, 농촌의 일상 등 세찬 변화 속에 30년 전의 제주가 먼 과거의 한때처럼 느껴진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장을 지낸 김 작가는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으로 있다. 이 전시는 당초 대한민국사진축전을 통해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온라인으로 장소를 옮겼다. 전시 작품은 인터넷 카페 '김중현 포토에세이'(https://cafe.naver.com/jejuessay)에서 만날 수 있다.

전선희기자

2020-2021 제주도민 제천방문의 해

1박2일 답답하다! 떠나자! 제천여행

제천시 관광미식과 043) 641-6702 | 제천시 제주홍보사무소 064) 900-8077

제천은 코로나 사회전파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매주 화,목,일요일 출발 (11/10부터)

내륙의 제주도, 슬로시티 제천

국내최대의 호수 청풍호와 케이블카

호수에 비친 단풍의 데칼코마니

제주연합패키지 299,000~ (단체버스투어)

가족안심패키지 399,000~ (4~6인 단독행사)

제1일 제천: 제주공항-청주공항-임원지-역사박물관-호변 산책-중식(현지식)-청풍호 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옥순대교(옥순봉)-석식(현지 특식)-숙소

제2일 단양: 조식-도담삼봉-천동굴(또는 온달동굴)-중식(단양 마늘정식)-단양강 만천하 스카이워크-약초술 담그기 체험(약초술 증정)-(제천역-청주공항역 열차 탑승)-청주공항-제주공항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박3일 및 단독행사의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굿모닝제주투어 723-3350

늘푸른여행사 726-3344

FM여행사 702-1950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파랑새여행사 744-1233

현여행갤러리 725-0818

● 포함내역: 왕복항공료,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차량료, 숙박비(4인 1실), 식사 3회 ● 불포함내역: 기사/가이드 팀 1만원, 호텔숙료(일부 항공편)